



## 제69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 참가 보고

유 태 형\*

### ◆ 대회개요

올해부터 대회 공식명칭이 세계도서관정보의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로 바뀐 제69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가 독일의 베를린 ICC(국제회의센터)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대회장은 아우토반 고속도로의 초입에 위치하여 호텔 등이 위치한 시내중심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어 각종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회장 내부와 주변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회 참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33개국 4,560여명(처음 참가하는 1,182명 포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회 대표단 60여명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이 참가하였고, 북한에서도 독일 문화원의 초청으로 2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엑세스 포인트 도서관-미디어, 정보, 문화”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폐회식, 평의회 I·II 그리고 약 180여개의 각종 전문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분과회의, 워크숍과 그룹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회기간 중 각종 게시물을 게시하고 관람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인 포스터 세션이 76개, 160여 업체와 ALA등 각 국 도서관협회 등이 참여한 도서관 관련 전시회가 있었으며, 개최국 독일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던 베를린주립도서관과 훔볼트대학도서관, 베를린의회도서관 등 80여개 주요 도서관을 견학할 수 있었다.

### ◆ 총회 및 개·폐회식

이번 대회의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8월 3일(일) 개최된 총회 I에서는 우선 차차기 회장 및 이사에 대한 우편투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회장당선자는 Alex Byrne (Australia)이며, 이사는 10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IFLA사무총장의 연간활동보고 사항으로 Core program 운영 변경 및 폐쇄내용과 재무위원의 재정이 안정적이며 회원이 전년도 대비로 증가되었다는 2002년도 재정보고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개회식과 참가자 환영 리셉션이 이어졌다. 8월 8일(금) 개최된 총회 II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도서관의 파괴와 약탈, 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도서관의 재건에 대한 결의안과 세계 각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골과 도시인들을 위한 도서관개발프로그램 등 8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한국도서관협회 팀장, klanet@hitel.net

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폐회식에서는 2008년도 대회 개최지로 캐나다의 퀘벡시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고, 2004년 개최지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2005년도 개최지인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회참가를 요청하는 홍보연설과 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Christine Deschamps 전임 회장과 Kay Raseroka 신임 회장의 회장직 인수인계 및 인사말이 있었으며, 2004년 3월 퇴임하는 Ross Shimmon 사무총장의 퇴임인사가 있었다.

#### ◆ 우리협회 대표단의 활동

우리협회의 대표단은 공공, 대학, 전문도서관 등의 현장사서들로 구성된 일반참가자와 IFLA2006서울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신기남 회장, 한상완 부회장, 정동열 국제교류위원장,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과장), 그리고 IFLA 회원국으로서의 활동과 대회 참가일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 임직원(이경구 사무총장, 유대형 팀장, 신재은 팀장) 등 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협회 대표단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IFLA본부에서 미리 보내온 IFLA2006서울대회 매뉴얼 초안에 대한 IFLA본부 측과의 협상이 그것이었다. 그 매뉴얼은 우리협회로서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할 수도 있는 국제관례상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협회에서는 선발대를 미리 보내기도 하면서 그들과의 협상을 준비하였다. 대표단이 도착하여 선발대로부터 IFLA본부와의 사전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음을 보고 받고, 예정된 공식 협상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개·폐회식 및 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IFLA2006서울대회 개최를 위한 회의실 등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였다. 현장사서들로 구성된 일반 참가자들은 각종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선진적인 독일의 각급 도서관 견학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바쁜 모습들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 동구권의 국가도서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 ◆ 향후 과제

IFLA2006서울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여야 한다. 우선 앞으로 있을 IFLA대회에서 2006서울대회 홍보 부스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회 참가자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2004년, 2005년 대회 개최지뿐만 아니라, 2007년도 대회를 개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urban이 IFLA본부 부스에서 안내전단을 나눠주며 자국 대회를 홍보하였음) 이번 대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자국 도서관 사서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대회 준비를 위한 우리나라 사서들의 자질향상과 세계 도서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언어 능력을 갖추는 등의 국제감각의 배양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도서관의 인프라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